

서 평 지

서평 제목	그래야만 한다면	참가번호	2023-21
도 서 명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확 인	기재하지 마세요

※ 서평지 2매, 글자수 1,500자 이상(공백제외) 작성
 ※ 함초롱바탕, 폰트크기(11pt), 줄간격(160%)

"그래야만 한다." 어른이 되면 자유로울 수 있을 줄 알았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좁은 공간에 교복을 입는 학생이 생각하기에 어른들의 부지런한 발걸음이 부러울 만도 했다. 어른에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든 건 그 발걸음에 자유의지가 얼마 없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다. 어렸을 때와는 달리 누가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야만 하는 사정이 생긴다. 소설 속 "어떤 결정을 내리라고 그에게 강요하는 사람은 없었다."처럼 내게도 강요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나 누가 강요라도 했으면 하는 순간이 있다. 누군가 강요한 거면 원망의 감정이랄까 느낄 텐데 그마저도 아니어서 힘든 순간에 결국 나를 탓해야 한 적이 있다. 스스로를 몰아세운 셈이다. 어른이 되자 훗날 날 수 있을 것만 같던 자유는 커녕 어깨에 짐이 늘어나 삶이 점점 무거워진다. 결국 자유가 아닌 매 걸음 발자국을 남기게 되고, 그 발자국으로 살아온 날을 돌이켜 볼 수 있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내 의지와 반하는 것을 선택하고, 자유라는 가벼움을 선망했지만 결국 무거운 책임감 덕분에 보다 바람직한 내가 완성된 것처럼 삶은 모순이다. 사비나를 짓누른 것은 짐이 아니라 존재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라고 말한다. 내게도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삶을 괴롭게 만들고, 또 발자국을 남긴 것일까?

이상이란 발견할 수 없는 무엇이라고 칭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발견할 수 없는 것을 정상 삼아 자신을 수련하며 나아가는 것일까? 가벼움과 무거움 사이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는 것이며 원형인지 직선인지 모를 인생을 버티는 것일까? 한 번만 산다는 것은 살지 않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는데 나는 우주 속 한낱 먼지가 될까 아니면 노벨상을 받는 위대한 인물이 될까. 자유를 갈망하던 내가 이제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짊어진 것을 보면 절정의 순간에 울릴 심벌즈를 기대하며 사는 것 같다. 인생에 심벌즈 소리가 울릴 수 있도록 부지런히 발자국을 남겨야겠다.

전과는 달리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나면 나를 돌아보게 된다. 나의 역할이 단지 학생에 머무는 것이 아닌 누군가의 선생님이 되었다가 동료가 되는 순간이 오기 때문이다. 이는 나의 역할이 전보다 더 많아지고, 책임감을 요하는 순간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험과 취향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할 수도 있고, 나를 알아갈 기회이기도 하다. "젊은 시절 악보는 첫 소설에 불과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함께 작곡하고 모티프를 교환할 수도 있지만 보다 원숙한 나이에 만난 사람들의 악보는 어느 정도 완성되어서 하나하나의 단어나 물건은 각자의 악보에서 다른 어떤 것을 의미하기 마련이다." 나의 악보는 고유성을 얼마나 담고 있을지, 내가 타인을 물들이게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또, 타인이 내게 준 변수로 인해 내가 구상한 악보에서 비껴가는 부분도 존재할 것이다. 그것은 나의 삶은 더 듣기 좋은 선율로 만들어줄 지, 오히려 악상의 반전을 일으킬지 궁금하다. 그렇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것을 접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인생은 현재에 더하는 수직선이 아니라 돌 수 있는 원형에 더 가까울 것이다. 윤회를 믿는 탓에

서평 제목	그래야만 한다면	참가번호	2023-21
<p>인생은 다음 생을 위해 현재를 수련하는 삶의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한 번을 살아도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닐까 반문이 든다.</p> <p>어떤 사람은 다름을 포기하는 순간 권태가 찾아온다고 했다. 나는 토마시와 테레자의 이야기를 보며 이상이 다른 남녀가 만나 자신의 일부를 포기하고 상대방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남을 이해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살았다.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상대방의 사고까지 고려하기에는 피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랑은 추구하는 이상이 달라도 사람을 쫓다 보면 결국 나와는 달랐던 이상까지 이해하는 순간이 찾아오고, 권태는 나와 같음을 강요하는 순간에 찾아오는 것이라고 이해하게 되었다. 사랑은 악보를 극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결국 양극단에서 방황하는 모순을 선사하는 감정인 것이다. 사랑이라는 감정에 휩싸여 자신의 악보를 상대방에게 내어줄 수도 있는 것임을 깨닫고 내가 사랑하는 존재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다. "만약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사랑받기를 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테레자가 토마시와 카레닌을 향한 사랑의 감정을 나타낸 글귀다. 상대방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 사랑이 양방향이 되기를 원하는 것 모두 원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랑하는 마음을 주면서도 머릿속으로 무언가를 계산했던 지난날이 떠오른다. 니체는 최대의 오만을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라고 말하는데, 이 오만 속에서 테러하자는 자신이 연인 인생의 악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만나 많은 것을 잃어버린 상대방을 마주한다. 소설 속 슬픔은 둘의 사이가 종착역에 있다는 것이고, 행복은 함께 있음을 의미한다. 함께 있는 것이 서로에게 마냥 행복한 것이 아닌 연인의 사이로 소설은 끝이 나는데 마지막까지 삶의 모순과 역설을 암시하며 인생에 질문을 던진다.</p> <p>삶에 불가항력이 따르는 때가 있다. 그래야만 할 때가 있다. 탄생과 죽음 사이에는 선택이라는 말처럼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지만 선택지는 있음에도 그래야만 하는 순간에는 자유를 저버리게 된다. 이래야만 하는 삶에 싫증을 느꼈지만 내 삶을 원형이라고 생각하니 언젠가 변주가 올 순간을 기다리게 되었다. 기다리기보다 발자국을 내며 살다가 그 순간을 마중 나갈 것이다. 그래야만 한다면 내가 선택할 것이다.</p>			